

푸른 5월 하늘 아래 모두가 즐거웠다

눈길끄는 가정의 달 행사

이 모 저 모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남구 곳곳에서 열렸다.

남구는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특수학교 부산해남학교와 부산해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청소년 어울마당'을 열었다. 오전 오후로 나뉘 학교별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700명에 가까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가해 마술공연과 명랑운동회, 대동놀이 등을 통해 협동심과 우정을 쌓았다.

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지난날 26일부터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과 친구 되는 신나는 동국나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사)색동어머니회에서 전래동화 '해님 달님'을 각색한 동화극 '오라차차 내 친구 호랑이'를 무대에 올려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 사랑을 전 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복지관 내 너른마당에서 제7회 용호장승축제를 열었다.

'우리동네 하나되는 장승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제를 시작으로 제10회 장수잔치, 제15회 어르신 효 콘서트, 실버건강미인대회, 주민노래자랑,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열렸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린 실버건강미인대회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규석)은 지난 7일 복지관 내에서 제2회 동네사람들과 함께 여는 마을잔치 '오라차차 효 어울마당' 행사를 열었다. 8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마을잔치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달아드리는 순서가 마련됐으며 생필품나눔기, 주민공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병원장 나용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여 지난 15일 '5월애 병상 금혼식'



지난 19일 열린 '장애인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과 학부모가 어울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식'행사를 열었다.

결혼 후 50년을 오롯이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5월의 주말 한때를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자녀들에게 가족애의 소중함을 일깨워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재영 남구문화원장과 최원철 이사, 황영식 남구자원봉사센터장 등의 내빈과 환자들과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금혼식 실버미인대회 눈길 주민참여형 어울마당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 '풍성'

이 날 금혼식의 주인공은 몸이 불편한 아내 이덕선(73) 할머니를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다는 권판도(82) 어르신을 비롯해 부부가 같이 노인성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 중인 심인구(82)·신외덕(76)커플, 조철대(77)·이필리(78)커플이었다.

운산초등학교(교장 조경순)는 지난 4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장자산 등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통해 선후배간의 사랑과 건강한 체력을 키우

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특히 전교생이 학년별로 색상을 달리하는 티셔츠를 입고 팀을 이뤄 장자산을 오르며 협동심을 길렀다.

실신남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임성희)와 아파트부녀회(회장 박성민)는 지난날 24일 중앙놀이터와 도서관에서 어린이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아파트 내 입주주민과 어린이 등이 참여한 이날 축제는 체합마당과 참가마당, 행복마당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이날 가족과 함께 대형 윷놀이와 OX퀴즈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남구연극회(회장 박동민)는 지난 13일 오후 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남구연극회(회장 박동민)가 마련한 '요지경 세상'이 선보였다. 어르신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대상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평소 접하기 힘든 연극을 관람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용호1동 청년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9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체육공원에서 9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오륙도 어린이 시상대회를 열었다.

신강희·유경희·문민희 기자

제2회 부산남구 『아름다운 가정상』 시상 후보가정 접수

- 선정대상 : 아름다운 가정상 1가정
- 시상내역 : 상패수여 (150,000원 상당)
- 시상시기 : 2010년 7월 여성주간(7.1~7.7) 기념행사시
- 기본요건
 - 추천일 현재 남구 관내 3년 이상 거주 가족
 - 3대이상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모범이 되는 화목한 가족
 - 다자녀가정 :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셋째 자녀가 2000년 이후 출생인 가족
- 접수기간 : 2010. 5. 20~6. 20(1개월간)
- 접수처 : 남구청 주민복지과(문의전화 : 051-607-4352)



용호장승축제 기간 중에 열린 실버건강미인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포즈를 취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 마련한 '5월애 병상 금혼식'행사에서 결혼 50주년을 맞은 노부부들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맞춰서 차려입고 사진 촬영하고 있다.



용호1동청년회가 마련한 제13회 오륙도 어린이 시상대회에서 어린이가 생애최초로 지난 9일 열렸다.



노인사기 예방극 '요지경 세상'이 지난 13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열려 이곳을 찾은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용호1동 일신남포아파트에서 열린 어린이 축제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대형 윷을 던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남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지난날 26일 개최한 '책과 친구되는 신나는 동국나라' 공연을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7일 개최한 2회 동네사람들과 함께 여는 마을잔치 '오라차차 효 어울마당'에서 한 주민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애창곡을 부르고 있다.



선·후배간의 사랑과 건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산초등학교 장자산 등반행사가 지난 4일 열렸다. 6학년 어린이가 후배 어린이를 업고 장자산을 오르고 있다.

아! 그리운 사람,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술은 반이 눈물



이두래

저녁노을을 등진 채 아버지께 가득 넘실대는 풀 집을 지고 대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모습은 내 마음을 지워지지 않고 오롯이 남아있다.

젖어 걷어 올린 바짓가방이는 가난 같은 풀

물이 짙게 배었고, 캄캄한 다리에는 식구

를 먹여 살려야 하는 시퍼런 소명(召命)

처럼 정맥류가 푸르게 드러나 있었다.

'곰'하며 풀 집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어

개는 당신이 가진 땅뿔기만큼이나 좁고 왜소해 보였다. 식구 먹여 살리기도 버거울텐데 소까지 머릿수 하나를 보태니 아버지는 모든 집이었으리라.

들일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쇠뿔

을 한집 베어 지고 들어오던 아버지는 세

수를 하고 마을 가게로 향했다. 하루의

피로와 약간의 허기를 달래줄 한잔 막걸

리를 마시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한잔이

한 병이 되어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가 우

스워 킁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

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도

피, 그것은 몇 걸음만 걸어가면 문을 열

어놓고 기다리던 초라한 시골동네 막걸

집이었지만 한 병 술에도 쉬 무너지는 아

버지의 약한 체력은 삶의 버거움을 말해

주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만큼 나는 총명할 아이는 아니었다. 사회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조금씩 아버

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 아

니만큼 돌만 키우는 요즘인데도 통장에서

한달이면 빠져나가는 교육비며 학원비에

가정경제는 휘청거린다. 그럴진대, 너털

놈이 아침 등굣길에 내미는 손은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까.

'아버지의 술잔은 반(半)이 눈물'이라

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아버지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싶었다. 그

러나 울 수는 있어도 손을 잡아 볼 수는

없다. 아버지, 삶을 내려놓는 지 십수 년

이다. 물어본 적 없어 알 수 없지만 아버

지의 삶은 벗어날 수 없는 무게를 짊어

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일곱 남매의

만이었고 자식 일곱을 둔 아버지였으며

부모 없는 조카들까지 거두어야 했던...

살아 계신다면 물어보고 싶다. 당신의

삶은 무엇이었느냐고. 기자·홍호1동

입은 너의 웃이 택배로 도착해 또 한번

널 생각하게 하더구나.

원천아 많이 힘들지. 아버지를 빼앗아

놓아준 너를 아내는 늘 생각한다.

5주간의 군사훈련이 2년 군생활의 밑바

탕이니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기 바란다. 피할 수 없는 남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 즐기며 2년을 잘 보내기

바란다. 훈련이 마치고 나면 이제 곧 자

매제치를 받게된다.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와서 힘껏 너를 안아보고 싶다. 또

절도 있는 너의 거수경례를 받고 답해주

고 싶다.

그곳 철원의 날씨는 아직도 춥다고 하

구나. 건강 잘 관리하고 만나서 좋은 얘

기 많이 나누도록 하자구나. 아빠 이들이

막내 원원이가 울고 있어 아버지의 마음

을 더 힘들게 하더구나. 하루 지나고 이

를 지나 마음을 다잡을 때쯤, 임대할 때

셋째 낳은 자랑스런 동생



이정애

"따르릉, 따르릉" 식탁위에 놓여져 있던 휴대폰이 유난히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어 박서방!

뭐? 아들을 낳았어?"

기장에 사는 동생이 아

들을 낳았다. 그것도 셋

째를, 딸 둘을 낳은 동생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셋째를 가진 건 아니었다. 실수

로(?) 들어선 셋째. 동생 부부는 낳을지 말

지 고민했다지만 임태한 생명을 지을 수 없

어서 두는 절끈 감고 셋째를 낳은건데 그

게 아들이라며 제부가 전화를 한 것이다.

요즘 세상에 셋째는 정말 기네스북에나

오를 일이지 온 가족이 더더욱 경사로

느낄 일이지도 했다.

웃을 땀겨 입고 가장으로 향했다. 동생

은 셋 모두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둘째

를 낳았을때 제부에게 농담으로 "돈 아꼈

라고 아이도 자연분만으로 쏙쏙쏙 안날

나? 제부가 한턱 봐야 한다 아이가"라고 동

생을 추켜 세운적도 있다. 병원으로 가면

서 이번엔 아들을 낳았으니 제부의 입이

귀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동생이 아이를 낳기 전에도 나는 "자연

분만으로 낳은 아이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

한다카더라. 그러니까 너도 아프더라도 참

고 자연분만으로 낳아"라고 말한 터였다.

어릴 때부터 겁도 많고 특히 아픈 것이

라면 기겁을 하는 동생이었지만 무슨 감심

장인지 아이 셋을 전부다 자연분만으로 낳

았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산고에 지은 동생

의 얼굴을 보고서 마음이 아왔다. 산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동생의 얼굴이 많이 아니었다. 마치 싸우다 얻어맞은 듯 입술이 부르트고 팔과 다리에 피멍이 있었다. 동생은 나를 보자 몸을 겨우 움직이면서 "아파도 잘 참았더니 아들이 나왔네"라며 웃어 보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리고는 참기 어려웠던지 나를 꼭 안으며 결국 울음보를 터트렸다.

오후 2시30분, 아기와 첫 대면을 했다.

장군처럼 큰 3.8kg의 우렁아. 얼마나 우람

하고 예뻐졌어. 고생이 많았으니 격려해주

고 축하해 주يس소. 그리고 열심히 잘 살라

고 힘을 북돋아 주고에"라고.

지금은 출산 후 한달이 다 되어 간다. 동

생은 지금 우리 집에서 산후 조리를 하

면서 쉬고 있고, 아기도 얼마 쉴이 모자랄 정

도로 잘 먹고 잘 크고 있다. 가끔 기지개를

쳐는데 내 눈에는 '늘이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녀석이 쫓 크려나....

동생이 빨리 회복하고, 아기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엄마들이 더 많은 아기를

낳아주었으면 좋겠다. 주부·김민1동

진짜 사나이로 만나자



조상영

것은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열심히

훈련 받고 있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조그마한 소망이 담겨 있

는가 보다.

군 입대사를 전, "아버지 세 밤만 자

면 군대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너

의 얼굴에서 안심시키고려 하는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뺨가를 울컥하게 하더구

나. 당당하게 널 보내주기 위해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의정부 306호 보충대로 함

께 갔었지. 엄마는 눈물을 보이더라도 아

빠는 절대 눈물 보이지 않고 아들과 약속

하고 입대시켜주고 올꺼라고 달리는 차안

에서 몇 번이고 다짐을 하였었다. 25년

전 아빠가 입대할 때와 비슷한 군악대의

웅장한 군가소리는 이제 잠시 아들과 딸

에게서였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들게

해 주더라. 대대장의 간담한 인사말이 끝

나자마자 우리가족은 너의 손을 놓아야

했었다.

연병장을 가로 질러 집합장소로 들어가

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절대 아들을 보내

고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다짐

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2년이라는 시간

을 다른 곳이 아닌 군대라는 곳에 보내

게 갔었지. 엄마는 눈물을 보이더라도 아

빠는 절대 눈물 보이지 않고 아들과 약속

하고 입대시켜주고 올꺼라고 달리는 차안

에서 몇 번이고 다짐을 하였었다. 25년

전 아빠가 입대할 때와 비슷한 군악대의

웅장한 군가소리는 이제 잠시 아들과 딸

에게서였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들게

해 주더라. 대대장의 간담한 인사말이 끝

나자마자 우리가족은 너의 손을 놓아야

했었다.

연병장을 가로 질러 집합장소로 들어가

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절대 아들을 보내